

‘증류주·제로’ 주류업계에 새 바람 분다

작년 증류식 소주 출고 28% 급증
과당 무첨가·무알코올 칼로리 ↓
쌀산업 위기 소비촉진 대안 주목

‘원소주’를 필두로 한 증류식 소주가 MZ세대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주류업계가 증류식부터 과당 무첨가까지 다양한 종류의 술을 출시하며 변화를 꾀하고 있다.

특히 증류주 소비가 늘어나면서 증류주가 쌀값 폭락에 신음하는 농민들에게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돌파구가 될 지 주목된다.

19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롯데칠성음료는 지난 14일 처음처럼 출시 이후 16년만에 과당제로 소주인 ‘처음처럼 새로’를 출시했다. 특히 이 제품은 소주 고유의 맛을 지키기 위해 증류식 소주를 첨가했으며, 과당을 사용하지 않은 이른바 ‘제로 슈거’ 제품으로 소비자들의 이목을 집중

시켰다.

하이트진로도 증류주 트렌드에 맞춰 지난달 ‘진로 1924 헤리티지’를 출시했으며, 증류주 인기의 표문을 연 가수 박재범의 소주 브랜드 원스 피리츠도 최근 세 번째 상품 ‘원소주 클래식’을 공개하고 나섰다.

증류주 시장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국제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증류식 소주 출고량은 전년 대비 28% 급증한 2,567kℓ로, 올해는 원소주의 영향으로 5,000kℓ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GS25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7~8월 증류식 소주 매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1,281% 올랐으며, 전체 소주 매출에서 2% 수준에 그쳤던 증류식 소주 매출 비중 또한 25.2%까지 급증했다. 지난해 국내 희석식 소주 출고량이 전년 대비 5.5% 감소하며 82만 5,858kℓ를 기록하는데 그친 데 비하면 가파른 성장세다.

증류주뿐만 아니라 무알코올의 ‘헬스데이’, 대신 주조의 ‘대선’ 등이 과당을 넣지 않은 제품으로 리뉴얼되면서 ‘제로 슈거’ 제품이 속속 등장하



출시 두 달 만에 누적 판매량 100만병을 기록한 ‘원소주 스피릿’ /GS25제공

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이른바 ‘헬스 플레저(건강을 즐겁게 관리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풀이된다. 내년부터 주류제품에 도입되는 열량 자율표시제도 무시할 수 없다. 주류업계가 내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주류 제품의 열량 자율표시를 확대 추진하기



무알콜 맥주인 오비맥주 ‘카스 0.0’ /오비맥주 제공

로 결정하면서 소비자들이 소주나 맥주를 구매할 경우 칼로리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서다. 맥주시장도 제로 및 무알코올 맥주를 잇따라 출시하는 등 소비자 트렌드에 동참하고 나섰다.

오비맥주 또한 ‘스마트 분리공법’을 통해 무알콜 맥주인 ‘카스 0.0’를 출시했으며, 롯데칠

성음료도 비발효 제조공법을 통해 탄생한 무알콜 맥주 ‘클라우드 클리어 제로’를 선보이는 등 관련 제품 출시에 박차를 가했다.

한편 쌀을 이용해 만드는 증류주 특성상 증류주 소비가 늘어나면서 원소주가 지난 4월 28일 원주농협과 업무협약을 통해 원소주 원료 전량을 원주농협 쌀인 ‘토토미’를 사용해 만들겠다고 발표하면서 증류주가 쌀값 폭락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역 농민들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전남지역 주류 제조업체 101곳 중 담양 죽향도가와 추성고을, 곡성 산고을영농조합법인, 강진 병영양조장, 해남 송우종명가, 영광 대마주조, 장성 청산유수와 더퓨류 등 8개 업체에서 증류식 소주를 제조 및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이 막걸리를 위주로 생산하고 품이 많이 드는 증류주는 남은 시간에 생산하는데다 관련 설비도 열악해 쌀 소비 촉진을 돕기 위해서는 도 및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한 양조장 관계자는 “쌀 촉진 및 전통주 살리기 위해 도 또는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 소규모 양조장을 위한 지원책 확대 방안을 마련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한국광기술원이 국제표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 인증을 획득했다. /한국광기술원 제공

한국광기술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한국광기술원은 국제표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ISO 45001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최적의 작업환경을 조성·유지하기 위해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안전보건경영 관련 국제인

증이다. 한국광기술원은 모든 사업장 내 산업재해 및 위험요인 분석·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근무환경 조성에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본 인증을 취득했다.

이번 인증을 통해 ▲안전·보건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목표 설정 ▲각종 조직 활동에 내재한

위험요인의 사전 파악 및 제거와 관리를 위한 절차 개발 ▲조직 내 물적·인적자원 효율적 배분 ▲조직적 관리 가능한 국제적 수준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게 됐다.

한국광기술원 신용진 원장은 “한국광기술원은 앞으로도 안전보건 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안전문화 확산과 안전관리 체계 안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승현 기자

금호타이어 임단협 협상 결렬 내일부터 쟁의 찬반 투표 진행

금호타이어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이 결렬되면서 금타노조는 오는 21일 즉각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 여부를 결정한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19일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단협 교섭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노사는 지난 15일 열린 2022년 임단협 13차 본교섭에서 ▲복지 회복 ▲상여금 200% 환원 ▲설비투자 ▲임금 5% 인상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했으나 사측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교섭이 결렬됐다.

금타 노조 측은 “2018년 중국 더블스타에 금호타이어가 매각된 후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임금 동결과 조합원 1인당 상여금 1,050%를 반납하는 내용의 특별합의안을 체결하는 등 무려 4년간 고통을 감내했지만, 사측은 약속했던 국내공장 설비투자마저 공장 이전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상여금 200% 환원 기준인 영업이익의 10%는 현재 경제구조와 광주공장의 노후한 설비로는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임금을 2018년도 수준으로 원상회복 할 것을 요구한

다”고 말했다.

이에 금호타이어 측은 “회사가 당면한 대내외 경영환경을 감안해 노사간 의견차를 좁혀가자는 사측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교섭 결렬을 결정할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사실상 노조 측이 주장하는 상여 환원 및 기존 재설정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8년 진행된 특별합의 내용 중 상여 반납과 그 환원 기준은 당시 더블스타와 재건단이 당사 인수 본계약과 경영정상화 약정을 체결하는 근간이 된 사항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광주공장 설비투자 건의 경우 지난 4.2 특별합의를 통해 광주·곡성 공장에 각 1,100억 설비투자를 합의한 바 있으며, 이후 2020년 단체교섭을 통해 공장 이전시 최첨단 스마트 공장 구축을 기본 골자로 이전 확정 시점에 설비투자를 재논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금호타이어 측은 “이전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현 부지에 설비투자를 실시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뤄냈으며, 실제 이후 설비투자를 완료했거나 추진 중인 사항도 있다”며 “금호타이어는 어려운 경영상황에도 불구하고 노조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대화를 통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니 노조 측 또한 현실을 직시하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골드메디타워 상가임대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64 (치평동, 구 청연한방병원 위치)

1층	근린시설	- 일반음식점 제외 / 카페, 옷가게 등 모든 업종가능 - 대로변, 2호선 지하철역 예정 - 전용면적 약 114㎡ (구 34평)
2층	사무실	- 전용면적 약 119㎡ (구 36평) - 전용면적 약 152㎡ (구 46평)
3층	의료시설	- 전용면적 약 909㎡ (구 275평)
9~12층	의료시설	- 전용면적 약 3780㎡ (구 1,143평)

전속공인중개사 : 행운공인중개사사무소 박덕아 (010-4634-7765)

골드클래스 담당자 : (070-4343-6310)